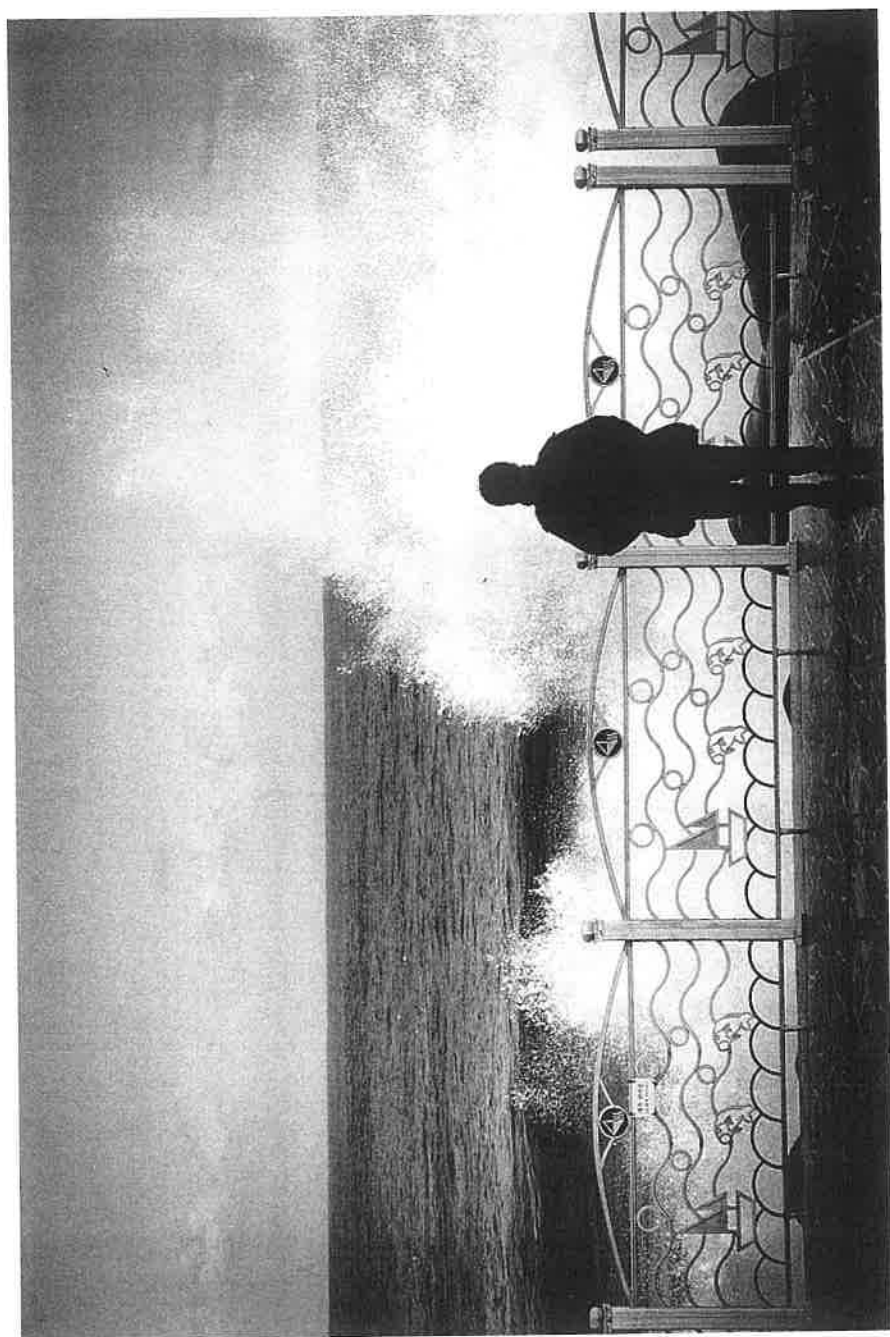




김잡이 V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2코린 9,15)

하느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며 하느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했던 성모님을 제외한 모든 이에 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선물은 우리를 돌려세워,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들추시며, 삶을 조절하려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

며, 인생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곳들로 우리를 초대하는 친구를 받 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힘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기 위하여 변모와 변화가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선물’인 것에 감사하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섬기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 나아갑니다.

정할 은총 기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깊은 회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보충 자료

- 1테살 4:13-18
- 마태 28:1-10
- 마르 16:1-8
- 루카 24:1-12
- 로마 14:7-9
- 로마 6:3-11

영신수련

(예수님은 첫 번째로 동정) 성모님께 나타났었다. 이는 비록 성서에는 언급이 없으나, 다른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데에서 전제되어 있다. (영신수련 299) : **이제부터-4294년까지**
 평소처럼 가능한 한 온전히 이 관상에 들어가도록 노력한다. 성경에는 말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수난 당하시는 동안 내내 곁에 함께 계신 어머니 마리아와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흥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분의 만남이 주는 기쁨과 사랑이 내 존재를 관통하게 한다. (영신수련 219, 220, 222-224)

서거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슬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가져다 올게요." 하고 말하였다. ...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요한 20:1-18)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제안

헨델의 「메시아」를 듣거나 새 생명을 연상시키는 현대 음악을 들으십시오.

성찰기도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응답들 속에 기쁨과 연민이 함께 녹아들어 있음을 의식하십시오.

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가져 주겠다.”(묵시 21-7)

질문

고난과 상실의 시간을 겪은 후 당신의 삶과 관계의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뜻밖에 발생한 놀라운 상황을 잘 받아들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방식으로 놀라게 하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 삶의 생각, 태도, 행동을 새로이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희망 때문에 당신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신앙과 희망이 평화와 행복의 토대가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친 마리아를 잠시 묵상할 때(또는 마리아와 함께 머물 때), 그러한 은총의 순간에 당신 안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오니까?

부활에 대한 당신의 신앙과 희망이 교회 구성원들의 고투를 더 잘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식별 도움말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차분하게 귀 기울이는 성향이 당신 안에서 자라 왔습니다. 그 경청의 성향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위로의 시기에 있는 동안에는 앞을 내다보고 위로의 시기에 주어지는 힘을 충분히 맛보아 위로가 주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영신수련 323)

(이 주간에는) 부침들을 변경하여 온 종일 계속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보내도록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주간에 가득 찬 기쁨의 분위기를 상기하고 아침에 관상하기로 한 신비를 되새긴다.(영신수련 229)

천할 우종

당신 슬픔과 실망 중에 있을 때
위로하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만
날 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보충 자료

사도 10:34-43

1베드 1:17-21

1코린 15:3-7, 12-14, 19-22

2코린 5:14-19

이사 65:17-25

영신 수련

그리스도께서 위로의 임무를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보통 서로 어떻게 위로하는지와 비교해 본다.(영신수련 224)

성경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나?”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느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

제안

최근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진화를 걸거나 짧은 편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십시오.

성찰기도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루카 24:33-35)

질문

당신 삶에서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실패와 상처와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당신의 몫으로 본다면, 그것들을 하느님께 막힘없이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맞이할 당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지어 생각합니까?

당신은 가족, 동료, 이웃을 위해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마련합니까?

당신에게 위안 또는 위로가 되는 활동들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이 그것들을 누리는 것을 용인합니까?

어떤 기회이나 활동에 참여했는데 하느님의 현존으로 당신의 마음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기쁨의 한복판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헤치고 나아갑니다. 위로의 시기와 실망의 시기에 누가 당신의 멘토가 되어 줄까요? 당신 역시 가만히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됨으로써 이 축복을 어느 정도까지 이어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당신 삶에서도 주님의 현존이 당신 마음을 속에서부터 “타오르도록” 작용합니까? 당신은 이 열정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특별 도움말

하느님이 당신에게 현존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당신 안의 표징들을 알아차립시오. 행복감과 영적인 기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루를 보내도록 노력한다. 햇빛과 따뜻한 날씨 혹은 눈 덮인 산봉우리와 온갖 자연의 다양한 아름다움과 같은 주님의 온갖 여건들에서 위로의 분위기를 느끼도록 한다.(영신수련 229)

서른째 순간

청할 은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과
권능에 의탁하는 당신의 신앙과
희망이 깊어지도록 청하십시오

보충 자료

골로 3:1-4
베드 1:3-9
시편 118:21-29
요엘 2:23-31
1코린 15:51-58

평화와 약속

영신수련

부활한 생명의 승리를 누리시는 예수님의 기쁨과 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간구한다. (영신수련 22)

성경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에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가 그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나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20:19-31)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제안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베드 3:15)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신의 신앙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질문

어떻게 당신의 신앙이 하느님과 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했습니까?

당신에게 신앙과 희망에서 어떤 부분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당신은 변화와 불확실과 의혹의 시기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에 또 누구에게 기댈니까?

당신의 삶에서, 세상을 돌보시는 하느님께 더 큰 신뢰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평화와 그분이 충실히 나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당신 삶의 우정에서 어떻게 경험해 보았습니까?

성찰기도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충실하시다는 희망을 담아 겸허하게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바칩시다.

식별 도움말

애가 3:21-26을 읽으십시오.

태양에서 햇살이 퍼지듯, 샘에서 물이 평평 터져서 마르지 않는 내를 이루듯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내가 태양과 샘을 그 햇살과 물살에서 알아보듯이 하느님은 내게 부여 주시는 온갖 선물들을 통해서 당신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하느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느님의 자녀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는 데 있다. 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표현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 하느님은 더 충만하고 더 나은 삶으로 부르고 초대하시며 당신 생명을 관대하게 나누어 주신다. (영신수련 237)

서른한째 순간

청할 은총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청하십시오

보충 자료

1코린 5:6-8
시도 2:42-47
사도 4:32-35
사도 5:12-16
사도 4:8-12
요한 15:9-17
1요한 4:11-16
에페 4:1-3

다른 이들을 섬기며

영신 수련

수난 때와 달리 예수님의 인격과 외모에서 그분의 신성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느껴 본다. 그분이 내게 나누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부활 발현 때마다 위로자의 역할을 수행하시듯이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낙관주의를 가능케 하는 신앙의 깨달음을 주시며 지금도 내 삶에서 같은 위로의 역할을 수행하신다.(영신수련 224)

성경 영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려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찾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걸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 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요한 21:1-8)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 쉼새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는 축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다.(요한 21:9-14)

질문

하느님의 선물이 사람들과 당신에게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하여 대담한 수단을 취할 수 있게 됩니까?

고유한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도록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신앙을 간절히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람이 되려면 복음에 기초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가정, 지역 사회, 일터에서, 특히 인권과 사회 정의에 관련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어떤 식으로 대변하여 그 리더십을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까?

제안

친구를 초대하여 아침이나 점심 식사, 커피 또는 차를 함께 나누십시오

성찰기도

일상적 상황에서서 신앙을 표현할 기회를 알려 주시도록 성령께 청하십시오

특별 도움말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당신의 자신감을 북돋는 효과에 주목하십시오

하느님은 내게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록한 사랑으로 증언하여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선물이 되어 오신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세상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하느님의 거처 혹은 성전으로 삼으신다. 하느님의 모습과 형상이 한층 더 활성화되어 인간 창조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을 발한다.(영신수련 235)

서른두째 순간

청할 은총

당신이 받은 선물들을 감사히
여기고, 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들기를 청하십
시오

보충 자료

에페 4:7,11-16
에페 1:17-23
에페 3:9-21
1코린 13:1-13
묵시 21:1-5
요한 14:18,25-26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총

영신 수련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나누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깊이 깨닫는 선물을 청한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영신수련 233)

성경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5-19)

질문

당신을 위한 하느님의 지속적인이고 충실하신 사랑에 열려 있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안

이 책의 여정을 당신과 함께했던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쁘게 기념할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성찰기도

성찰기도(양심성찰) 각 단계에서 당신을 안내해 주시도록 하느님의 성령을 청하십시오.

당신 자신, 가족, 동료, 그리고 당신이 속한 국가, 세계, 교회와 맺고 있는 당신의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더 분명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일과를 어떻게 재정리해야 당신의 진실된 정체성에 굳건하게 바탕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각하고 감사하는 감각이 성장했으니만큼, 당신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매 순간 집중해 있을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식별 도움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이라는 인식이 깊어지는 것을 음미하십시오.

주님, 받아 주소서.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과 지성, 저의 모든 의지와 제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받아 주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이것을 모두 돌려 드립니다. 모두가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처리하십시오.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 주소서.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받아 주소서, 주님!" 영신수련 234)

은총의 순간들을 거두어들이기

이 책으로 기도하면서 당신이 청한 은총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청원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청했던 은총들과 그로 인한 경험들을 기도 안에서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이 책으로 기도한 기간을 되돌아 볼 때, 영신수련의 통찰 가운데 현실적 지혜가 담겨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통찰을 숙고하고 그 지혜를 어떻게 삶의 리듬과 합칠지 성찰하십시오.

어느 성경 구절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까? 그 구절들을 통해서 주님께 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책에는 실제적 제언들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제언들에서 신앙과 일상의 연결에 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질문들은 당신 삶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계속 숙고하고 싶은 질문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들이 질문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인도합니

까?

식별 도움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식별에 더욱 민감해지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이 위로 중에 있거나 실망 중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찰기도가 당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더 자각하도록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이 자각에 대해 숙고하고 당신의 의식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심화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사진들에 의해 당신의 기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것들이 어떤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까?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 사랑은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데 있다. (영신수련 230231)